

DDA 2005년 11월 농업협상 동향

모델리티 협상 시한인 홍콩 각료회의를 한 달여 앞두고 주요국들은 핵심 쟁점에 대한 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각료회의를 가졌으나 이들간의 의견 절충이 쉽지 않아 홍콩 각료회의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1. EU, 새로운 제안서 배포

EU는 지난 10월 28일 농업분야와 비농산물 협상, 서비스 협상 등 여타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제안서를 배포하였다. 그동안 농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비난을 받아왔던 EU는 기존에 제시하였던 관세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의 감축률을 제시하였으나 관세감축방식에 있어 기존의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미국과 브라질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편 EU의 제안서에서는 비농산물 협상과 서비스 협상 관련,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주장하고 있어 브라질과 인도 등 개도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U는 제안서를 통해 비농산물 분야와 서비스 분야에서 브라질, 인도를 압박함으로써 농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 원하는 만큼의 신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보조분야 중 최소허용보조를 80% 감축하자고 제안해 50% 감축을 주장하는 등 미국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표 1 EU 농업분야 제안 주요 내용

분야별 쟁점		제안 내용
시장접근	관세감축	구간경계 선진국: 30/60/90% 개도국: 30/80/130%
		감축률 선진국: 35/45/50/60% (단, 최하위구간은 최소 20%, 최대 45%) 개도국: 선진국의 2/3 수준
	민감품목	품목수 전체 세 번의 8%(향후 하향 조정 가능 암시)
		대우 관세감축: 일반 감축폭의 1/3-2/3 수준 TRQ 증량폭: 구간별로 현행 수입량의 12-32% / 10-24% / 8-19% / 5-16% 증량
	특별품목	제한적 인정
	관세상한	선진국: 100% 개도국: 150%
	지리적 표시	모든 농산물 대상 지리적 표시 보호
국내보조	AMS	EU, 일본: 70% 감축 미국: 60% 기타: 50%
	de minimis	선진국 80% 감축
	블루박스	신규 블루박스에 추가적 규정 마련
	무역왜곡보조 총액	1구간: 70% 감축 2구간: 60% 3구간: 50%
	그린박스	현행 규정 유지

2. 홍콩 각료회의 기대수준 재조정

미국, 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 4개국 각료회의와 주요 4개국을 포함한 주요 협상 그룹간 각료회의가 열리는 등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의견충돌로 인해 타협안 마련이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홍콩 각료회의에서의 모델리티 최종 합의안 도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자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에게 홍콩 각료회의에서 완전한 형태의 모델리티가 도출되기 어렵다면 홍콩 각료회의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어 각료회의 이후에 모델리티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회원국간 논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은 기간마저 촉박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남은 쟁점에 대해 모두 논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홍콩 각료회의에서 무리하게 합의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때까지의 협상 상황을 정리·종합하고, 향후 협상의 토대를 닦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라미 사무총장은 분야별 협상 의장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취합하여 25일경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30일에 있을 TNC(Trade Negotiations Committee) 회의에 이를 상정할 예정이다.

(임소영 lsyjr@krei.re.kr 02-3299-42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